

一帶一路와 AIIB, 중국의 인프라·금융 굴기 전략

－ 인프라 건설 통해 경제 성장, 고용 확대, 불평등 완화 모색 －

손 태 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hsohn@cerik.re.kr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Way)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실크로드로 연결되는 국가의 수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65개에 달하며, 약 30여 개의 국가도 영향권에 있다. 또한 세계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합하면 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에 이른다.¹⁾

일대일로는 관련 국가들과의 공동 무역, 공동 건설, 공동 향유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발전 전략의 상호 연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은 일대일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통(정책통, 시설통, 무역통, 금융통, 민심통)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²⁾

첫 번째는 정책통(政策沟通)으로 실크로드로 연결되는 국가들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지역개발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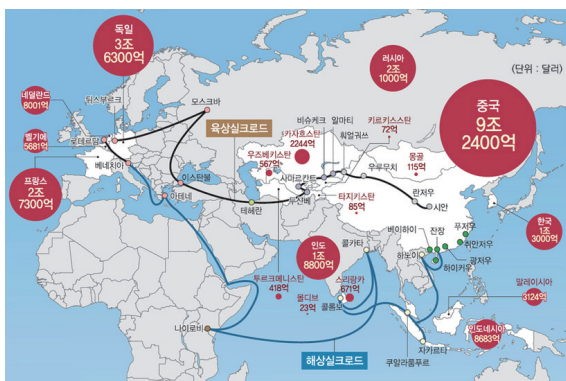
두 번째는 시설통(設施畅通)이다. 관련 국가들의 교통, 통신, 에너지 인프라 시설 등을 연결하고 건설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 시스템 등도 연계를 강화해 복합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세 번째는 무역통(貿易联通)으로 공동 자유무역 지대 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호간의 비관세 무역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등과 같은 산업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네 번째는 금융통(資金融通)으로 아시아의 통화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동시에 관련 국가들의 화폐 사용 확대를 포함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금융통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다.

다섯 번째는 민심통(民心相通)이다. 일대일로 국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자료 : 세계일보.

1) 习近平 “一帶一路” 构想战略意义深远(‘일대일로’ 시진핑의 광범위한 전략적 비전).

2) 추재훈(2015), China Report, 일대일로 전략.

가들 간에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³⁾

중국은 일대일로로 통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 내륙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을 아우르는 경제권역을 형성해 경제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서부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직면한 수요 부진과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수요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대일로의 자원 조달 방안

일대일로 추진에 필요한 금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금융 협력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1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다. 중국 주도로 설립된 AIIB는 신흥개발은행,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 등과 함께 일대일로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공급 방안의 하나로 현재 37개의 아시아 지역 국가와 20개의 비아시아 지역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8조 2,000억 달러다. 이 중 53%가 중국 내 또는 인접 국가와 연계된 수요이며 인도가 26%, 동남아시아가 13% 등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대규모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의 다자간 개발은행이 모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경제 논리를 통해 AIIB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의 핵심적인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내부 개발 수요를 인접 국가들과 연계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AIIB는 단기적으로 다른 다자간 개발은행과의 협조 용자 등을 통해 일대일로와 연관된 국가들의 인프라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기존 국제 금융체제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동시에 중국의 통제권에 대한 창립 회원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투자 방식의 사업보다는 독자 사업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일대일로 전략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부진한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과 일본 및 유럽 선진국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있다.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 산업의 생산성 제고, 불평등 완화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둔화, 고령화와 저출산, 산업 구조조정, 고용 감소 등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강화와 더불어 단기적 경기 부양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인프라를 중심에 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 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인프라가 핵심이다. **END**

3) 이수행(2015), 중국의 일대일로와 시사점, 이슈진단, 경기연구원.